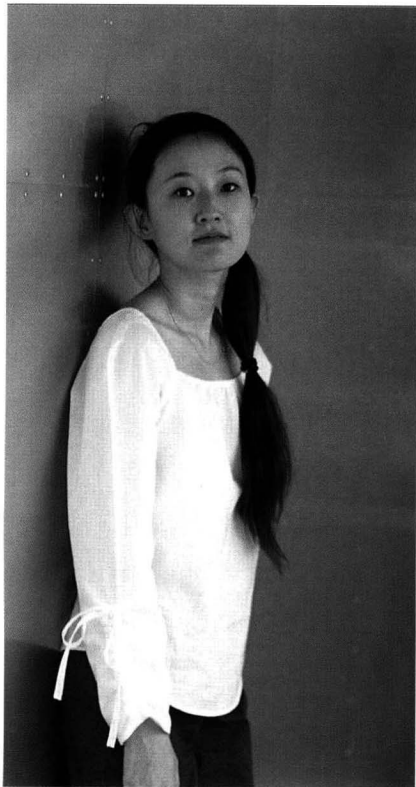


진정한 자유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너는 누구에게나 신뢰감을 주고 편안함을 줘. 누구나가 너에게 마음을 열 거야.”

《로베르네 집》의 예술가 카이아가 비디오 아티스트 장은아 씨(36)에게 한 말이다. 카이아의 말처럼 지난해 8월, 로베르네 집 예술가들은 프랑스의 유명 방송국 ENG 카메라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용감하게 이들을 방문했던 장은아 씨의 정성 앞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보였다. 마음과 마음은 통하는 법. 오만하게 인터뷰를 요청하지 않고 그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한 결과였다. 《로베르네 집》은 그렇게 완성된 인터뷰 책이다.

로베르네 집은 파리 도심 한복판에 쓰레기더미로 가득차 있던 빈집을 1999년 예술가들이 무단점거하면서 아틀리에로 만든 공간이다. 무법 예술가들의 이 공

간은 일반 아틀리에와는 다르다. 7층 건물에서 60여 명의 예술가들이 정열적으로 자신의 작품활동을 펼쳐 보이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그들의 전시와 작업을 관람한다. 작업, 전시, 토론, 일상적인 대화가 모두 가능한 그곳은 경계를 허문 현대미술의 단면을 보여주는 실험적인 공간인 셈이다.

“빈 건물 점거 후에 파리시와의 마찰이 있었죠. 그런데 유럽은 워낙 빈집 점거 역사가 오래되었거든요. 파리 예술가들이 유럽의 무단점거 사례를 들자 파리 시도 문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방법을 모색 중이죠.”

전시를 관람하러 왔다가 아틀리에에 머물게 된 린다. 50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작품활동을 하는 베르나르 할아버지, 영문학을 공부하고 피자 배달을 하다가 예술활동을 시작한 가스파르... 장은아 씨는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예술’이라 말한다.

“그 친구들은 자신들이 무상공간에 머물기 때문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부딪치다가도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혜를 발휘하거든요.”

이들을 통해 스스로의 나태함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역시 열심히 창조적인 예술활동에 몰입하고 있는 성실한 예술가 중 하나다. 늘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는 이미 <라 당스(춤)>와 같은 비디오 작품을 발표했고, 다양한 퍼포먼스로 머릿속에



《로베르네 집》 장은아 지음 | 시공사 | 222쪽 | 값 12,000원

있는 구상들을 실제로 끌어냈다. 약 10년간 파리에 있으면서 찻집이 여행을 다녔기에 여정 중에 생긴 친구도 한둘이 아닌 상황. 낙천적인 성격의 그는 로베르네 집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을 거르지 않고 표현하는 게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이었다고 말한다.

“가끔 ‘무단점거는 불법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로서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머지않아 시에서 허락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 와서 손님들을 보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는 버스 운전사 아저씨를 봤는데 ‘문화의 식이 이만큼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는 이 책을 통해 ‘자유를 얻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아름다운 진리를 전하고 싶다고 한다. ‘예술작품과도 같은 사람들 이야기’ 《로베르네 집》은 자유라는 이름의 용기로 예술가들에게 손을 내민 저자의 열정이 살아있어 더욱 빛나는 책이다. **한민**

취재 김정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